



꿀벌수염 묘기에 대한 기술



고려양봉원장 고상인

1. 서론

꿀벌을 통해 많은 부산물들을 생산하고 있으나 꿀벌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침(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잘 쓰기도 하므로 꿀벌을 관리 하기가 무척 어렵다. 꿀벌에

쏘이지 않으려고 얼굴에 면포를 착용하거나 장갑 등을 끼고 꿀벌들을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있다. 사람들은 꿀벌이 쏘지 않을까 무서워 하게 되며 양봉인들 역시도 꿀벌을 두려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꿀벌은 품종에 따라 매우 사나운 꿀벌들이 있는가하면 다소 순한 꿀벌들도 있으나 사람을 쏘지 않는 꿀벌은 없다. 여왕벌과 일벌은 다같이 침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을 공격하고 쏘는 꿀벌은 일벌 뿐이다. 여왕봉은 여왕봉과 싸울때에만 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절대



▲ 꿀벌수염 묘기 실연의 장면(고상인)

로 침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을 쏘기까지 하는 사나운 꿀벌을 사람의 몸에 수염마리를 붙이는 꿀벌수염 달기 묘기를 실연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양봉인들을 위협을 무릅쓰고 꿀벌수염달기 묘기의 실연을 해보기를 갈망하는 것은 어쩌면 양봉인으로서의 당연한 소망일런지도 모르겠다. 많은 양봉인들이 이러한 소망을 달성해 보고자 원하지만 기술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행 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많은 양봉인들로부터 꿀벌수염 실연기술 방법에 대한 교육 요청을 많이 받아 왔지만 사정에 의해 발표를 하지 못했으나 금번 제6회 국제봉료보건 학술대회를 통해 꿀벌수염달기 묘기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양봉인들이 갈망해 오던 꿀벌수염달기 묘기를 직접 실연 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외국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꿀벌수염달기 묘기 행사를 매년 정기 행사로 개최하여 양봉인들의 큰 축제 행사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2. 꿀벌수염달기 묘기를 실연하는 목적

꿀벌수염달기 묘기를 실연하는 목적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묘기로서 양봉인들에게는 기술과시의 의미도 있다고 하겠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

- 가. 꿀벌과 인간과의 친밀감의 표현
- 나. 꿀벌에 대한 자신감 부여
- 다. 양봉가의 능력과 기술 표현
- 라. 꿀벌에 대한 친밀감 및 안도감과 신비스러움의 표현
- 마. 꿀벌에 대한 끊임없는 인간의 도전 의지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꿀벌에 대한 자신감의 획득과 꿀벌과 인간과의 친밀감의 표현일 것이다. 침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꿀벌을 온순하게 만들어 자신의 몸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양봉인으로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며 후대에까지도 길이 남을 자신의 자랑스런 일이 될 것이다.

3. 꿀벌수염이란?

꿀벌수염은 글자 그대로 꿀벌을 얼굴과 몸에 붙여 꿀벌로 수염모습을 연출한다고 해서 꿀벌수염이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

꿀벌수염은 꿀벌들이 여왕봉을 중심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꿀벌의 습성을 이용한 일종의 묘기로서 꿀벌의 자연 분봉현상을 기본으로 한 양봉인 최고의 기술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꿀벌수염묘기 실연 기술은 양봉인 각자의 연구와 노력여하에 따라 자신만의 특기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 맨몸에 수많은 꿀벌을 붙이게 되면 꿀벌들이 날카로운 발톱에 의한 전신자극과 꿀벌들의 열기로 인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꿀벌수염은 일반적으로 꿀벌을 무서워하는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꿀벌과 인간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묘기인 만큼 꿀벌수염 실연 도중 꿀벌에 쏘이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즉,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여 꿀벌에 쏘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흥적인 무리한 꿀벌수염 실연은 삼가 해야한다. 그리고 후 실수로 꿀벌에 한두번 쏘었다고 하더라도 통증을 표현해서는안되며 밝은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신비스러운 즐거움을 느낄수 있도록 해야한다.



▲ 손바닥과 얼굴에 꿀벌수염 묘기를 실연하고 있는 모습

4. 꿀벌수염묘기 실연에

▲ 가슴에 꿀벌수염묘기를 사용할 봉군의 조건

연하고 있는 모습
꿀벌수염묘기를 실연하기 위한 봉군의 조건은 봉군세가 만상군인 강군이어야 한다. 꿀벌수염 부착부위와 상태에 따라 소요되는 꿀벌의 수량도 달라지겠지만 꿀벌수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실연하기 위해서는 약군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꿀벌수염묘기에 사용될 봉군은 대략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는 봉군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가. 신왕봉의 봉군
- 나. 10매 만상군의 강군이나 만상군의 계집군
- 다. 장기간 내검을 하지 않은 봉군보다는 자주 내검을 하여 관리해온 봉군
- 라. 신소비로 충만한 봉군
- 마. 저밀식량이 충만한 봉군(유밀기에 자연 저밀로 충만한 봉군이면 더욱 좋다)
- 바. 봉병이 발생되지 않은 건강한 봉군
- 사. 최근에 출방된 젊은 벌들이 많은 봉군
- 아. 해충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은 봉군
- 자. 도봉이 발생되지 않는 봉장의 봉군

등의 조건들에 맞는 봉군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 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저밀식량이 많은 강군을 최우선 조건으로 결정해야 한다. 적합한 강세군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을 시켜 강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5. 꿀벌수염묘기 실연을 위한 작업요령과 봉군의 관리 방법

가. 봉군의 준비와 관리

(1) 여왕봉의 사전격리

꿀벌수염묘기 실연에 사용될 봉군이 결정되면 실연 24시간(하루)전에 여왕봉을 먼저 왕농에 격리시켜 두어야 한다. 이것은 봉군내의 일벌들에게 자신의 여왕봉이 왕농 속에 격리되어 있음을 먼저 인식시켜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왕농에는 여왕 벌만을 격리시키고 일벌은 넣지 않아야 한다.

왕농의 양쪽 끝에는 연출자의 몸에 왕농을 매달수 있

도록 긴 끈을 미리 부착해 두는 것이 좋다.

여왕봉을 실연 24시간 전에 격리시키지 않고 실연 당시에 바로 왕농에 격리시켜 사용하게 되면 꿀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꿀벌수염달기 실연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2) 꿀벌의 착봉상태를 밀집

만상군의 봉군이라고 하더라도 실연 24시간전 여왕봉의 격리와 동시에 소비수를 2~3매 축소시켜 꿀벌의 착봉 상태가 밀집 되도록 하여 꿀벌들이 분봉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축소시켜 놓아야 한다.

(3) 사양을 통한 저밀의 확보 및 봉군의 안정

꿀벌수염 실연에 사용될 봉군은 저밀 상태가 좋은 봉군으로 선택해야 하지만 자연 유밀에 의해 저밀 상태가 좋은 봉군일수록 좋다.

유밀기가 아닌 시기에는 사전에 사양을 시켜 저밀이 충분하도록 해 주어야 하며 꿀벌수염달기 실연 전날에는 유밀기가 아닌 경우에는 식량이 충분하더라도 다시 한번 사양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때 사양액은 설탕을 사용하기 보다 벌꿀로 사양시키는 것이 좋다.

나. 꿀벌수염달기 실연 당일의 꿀벌관리 및 작업순서

사나운 꿀벌을 연출자의 몸에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꿀벌들을 온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꿀벌을 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꿀벌들에게 벌꿀을 배부르게 잔뜩 먹여야 한다. 이것은 자연분봉시 꿀벌들이 소비에 저장되어 있는 벌꿀을 잔뜩 먹고 분봉을 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자연분봉을 한 꿀벌들은 평소때보다 훨씬 온순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꿀벌들에게 어떻게 벌꿀을 배분리 먹일 수가 있느냐 하는데 있다. 꿀벌수염달기 실연 전에 꿀벌들에게 공급하는 먹이는 설탕을 용해시킨 당액을 먹여서는 안되며 순수한 벌꿀을 먹여야 한다. 벌꿀은 냄새를 많이 풍기지 않는 아카시아 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꿀물의 분무작업



(1) 꿀벌들에게 벌꿀을 먹이는 방법

꿀벌들에게 벌꿀을 먹이기 위해서는 먼저 벌꿀에 물을 약간 희석하여 (수분 20%의 벌꿀 1.2kg에 물 약 350~400g 희석) 수분함량을 35%정도로 묽게 만든 다음 분무기를 이용하여 매착봉 소비마다 분무를 해주어 꿀벌들이 벌꿀을 먹게한다. 소상 벽면이나 사양기 등에도 벌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역시 분무를 해준다.

분무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① 꿀벌들에게 벌꿀을 처음 분무하는 시기는 꿀벌수염묘기 실연 90분전부터 시작해서 5회정도 분무를 계속 해주어야 하는데 분무하는 단계별 시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차 분무-실연시작 D~90분전

나. 제2차 분무-제1차 분무 후 30~35분 뒤

다. 제3차 분무-제2차 분무 후 20~25분 뒤

라. 제4차 분무-제3차 분무 후 15~20분 뒤

마. 제5차 분무-제4차 분무 후 10~15분 뒤

이와같이 분무는 회수에 따라 시차 간격을 줄여가면서 시차를 정확히 지켜서하되 착봉 소비를 한장 한장 뽑아 내어 앞뒀던 모두에 골고루 분무를 해야한다.

② 5차 마지막 분무가 끝난 다음 10~15분 뒤부터 꿀벌수염달기 실연을 시작할 수 있다.

③ 마지막 분무가 끝난 다음 꿀벌수염달기 실연을 규정시간보다 30~40분 늦게 시작하게 되면 꿀벌들이 먹었던 벌꿀을 다시 소방에 토해내게 되어 꿀벌은 다시 사나워지게 되고 실연 작업시 꿀벌에 많이 쏘이게 되므로 시간을 지켜해서는 안된다.

④ 매회 분무가 끝나게 되면 봉군은 개포를 덮고 벌통 뚜껑을 평소와 같이 덮어둔다.

⑤ 매회 분무때마다 왕봉에 격리된 여왕봉은 소비사이에 계속 유지시켜둔다.

⑥ 분무시간은 단상군일 경우 약 3~4분 계상군일 경우 약 5~6분 소요된다.

다. 꿀벌수염달기 작업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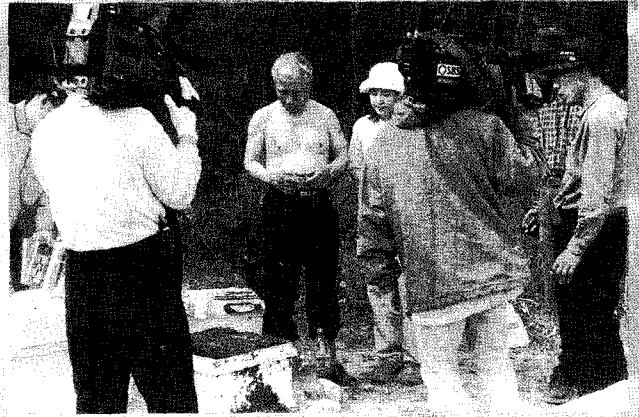
꿀벌수염 실연은 꿀벌에 절대 쏘이지 않는 상태에서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꿀벌수염 실연 작업중 꿀벌에 쏘인다는 것은 사전봉군의 관리가 잘못 되었거나 준비 미흡 또는 연출자나 보조자들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1) 꿀벌수염 실연 연출자의 자세 및 준비요령

① 연출자의 몸에 땀냄새가 나지 않도록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냄새가 강한 스킨 등은 얼굴이나 몸에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연한 로션등은 발라도 좋다. 그러나 머릿기름 등은 발라서는 안되며 몸에는 벌꿀이나 오일등 어떠한 것도 발라서는 안된다.

② 여왕봉이 격리되어 있는 왕봉을 소상에서 끄집어 내어 옷을 벗은 연출자의 몸에 왕봉 양쪽에 부착되어 있는 끈을 이용하여 단단히 묶는다.

③ 왕봉은 양쪽 젓가슴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하고 실연이 끝난 다음 왕봉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묶은 끈을 풀기 쉽게한다.



▲ 왕봉을 가슴에 매달기 직전의 모습

④ 꿀벌수염 실연 도중 연출자의 귀나 코로 꿀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숨으로 막아준다. 귀를 막지 않아 실연도중 귓속으로 꿀벌이 들어가게 되면 꿀벌수염 실연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므로 꿀벌수염 실연작업 시작전에 반드시 귀를 막아야 한다. 코는 반드시 막을 필요는 없으나 꿀벌들은 입냄새나 코로 숨을 쉴 때 내뿜는 공기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자칫 꿀벌을 자극하여 연출자의 얼굴 앞면을 쏘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능한 숨으로 가볍게 막아 벌들이 코로 들어갈수 없도록 하고 숨을 쉴 때 내뿜는 공기가 직접 꿀벌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⑤ 이상과 같은 준비가 끝나면 연출자는 의자에 편히 앉은 상태에서 젓가슴과 배꼽 중간부위에 꿀벌을 털어놓을 60cm~90cm정도 크기의 받침대(합판이나 두꺼운 합판지)를 고정시켜 놓고 연출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보조자들이 꿀벌을 합판 위에 털어놓으면 꿀벌들이 왕봉 속에 있는 여왕벌을 중심으로 연출자의 몸에 집결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받침대를 왕봉 가까이 접근시켜 소비 1개의 꿀벌을 탈봉시킨 꿀벌들을 받침대에 털어 놓고 꿀벌들이 여왕봉이 격리된 왕봉을 중심으로 집결하기 쉽도록 해준다. 다음 어느정도 꿀벌들이 집결되게 되면 받침대를 밑으로 서서히 내려주거나 받침대는 고정 시켜두고 연출자가 몸을 낮추어 왕봉에 꿀벌들이 어느정도 집결된 다음 서서히 몸을 세워가는 방법을 택할수도 있다.

⑥ 연출자는 꿀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조용히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과정 중에 자신의 모습을 볼려면 큰 거울을 전면에 비치해 놓고 자신의 모습을 보아가며 꿀벌수염 작업이 끝날때까지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작업도중 실연자가 몸에 힘을 주어 근육이 생기게 하는 등의 행동을 자주 취하게 되면 꿀벌들이 자극을 받아 그 부위를 쏘게되므로 실연자는 긴장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한다.

실연자가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되면 몸이 자신도 모르게 경직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꿀벌에 쏘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신감이 없을때에는 얼굴과 가슴 부위에 바로 시도하지 말고 처음 1~2번은 손바닥에 시험을 해본 다음 자신이 생겼을 때 본격적인 꿀벌수염 실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